

빈곤의 여성화 접근방식의 전환*

노 혜 진**

초 록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빈곤하게 사는 여성가구가 매우 많다’는 주장에서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가 현재의 접근방법과 담론을 넘어서기 위해 분석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 정의의 확대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과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단계까지 아우르는 투입, 산출, 성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확장된 틀을 제안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노동패널 12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빈곤의 여성화 결과를 기존의 가구주 단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와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확장된 틀을 적용한 빈곤의 여성화 결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주를 단위로 측정할 경우 1:3 성별 빈곤 격차 공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여성의 20% 정도만을 아우르는 한계를 내포한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가구주 단위 분석에서는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빈곤의 악화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을 단위로 빈곤실태를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다수집단으로 이동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성별 빈곤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성별 빈곤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빈곤 위험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내포한다. 그 외에도 개인을 단위로 분석하더라도 가구주를 단위로 했을 때처럼 여성 빈곤을 심화시키는 기제로서 가구내 불평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는 동일하였다.

이에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한 결과, 빈곤 여성이 빈곤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빈곤한 상황에서 여성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권리, 복지 수준은 그에 상응하지 않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다.

주제어 : 빈곤의 여성화, 다차원적 빈곤, 숨겨진 빈곤, 2차 빈곤

* 이 논문은 노혜진(2012)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의 일부를 축약·수정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론

여성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논의가 미국에서 도입된 지 어느새 30년이 경과했다. 국내에서도 여성 빈곤 연구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빈곤연구의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논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빈곤율과 빈곤위험은 남성보다 평균 3배 정도 높다(김수정, 2007: 113; 석재은, 2004: 174). 또한 빈곤의 강도(intensity)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는 남성보다 강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빈곤을 다룬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여성에게 빈곤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정미숙, 2007: 212).

굳이 여성빈곤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많은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빈곤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기간을 고려할 때, 여성은 장기빈곤과 항상빈곤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석상훈, 2007: 89; 이정아, 2009: 71). 또한 빈곤 역동 차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진입과 재진입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김교성·노혜진, 2009: 204). 그 외에도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경우 자산빈곤, 사회적 배제, 실현가능능력, 시간빈곤 등과 관련한 연구에서 여성은 일관되게 빈곤에 취약하다(김교성·노혜진, 2008: 152; 남상호·권순현, 2008: 23; 노혜진·김교성, 2010: 179; 최균·서병수·권종희, 2011: 105).

이와 같이 수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성 빈곤의 심각성을 보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 빈곤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었고, 기존의 탈빈곤 정책에서 간과된 젠더 차원에 관한 문제제기도 등장하였다. 그런데, 여성빈곤의 위험을 보고한 수많은 연구들과 다양한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왜 여전히 빈곤을 대표하는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빈곤하게 사는 여성가구가 매우 많다’는 주장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Wennerholm, 2002: 10). 지금까지 전개된 빈곤의 여성화 연구는 측정과정에서 주로 가구주를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로 설정함에 따라 여성가구주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가구 내 성별 불평등 문제가 논의의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수치상으로 볼 때 가구주보다 더 많은 가구원으로서의 빈곤여성을 충분히 가시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Chant, 2003: 23-26). 더불어 여성가구주를 대표적인 빈곤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칫 빈곤 발생의 원인이 남성가구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처럼 인식됨에 따라, 한부모됨을 빈곤의 책임인 것처럼 낙인화하는 문제도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기존의 접근방식이 빈곤을 경험하는 주체를 너무 협소하게 설정한 나머지, 오히려 여성빈곤의 핵심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대상을 전체 여성으로 확대한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기존의 접근방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빈곤의 여성화 연구가 개선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여성화

여성빈곤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만큼 폭넓게 활용되는 용어는 없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교육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빈곤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어스가 주목했던 현상은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연구 결과, 미국 성인 빈곤층의 66%, 노인빈곤층의 70%, 그리고 빈곤가구의 50%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로 구성되어 빈곤이 전반적으로 여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Pearce,

1978). 이후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빈곤을 다룬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인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빈곤의 심각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였다. 경제위기는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빈곤 인구 및 빈곤연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김교성, 2011: 51-52).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 퇴출, 결혼해체로 인한 여성가구주 증가 등의 상황은 한국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석재은, 2004: 174). 이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여성빈곤율은 신사회위험의 맥락에서 논의되었으며, 빈곤여성은 근로빈곤층과 더불어 대표적인 신빈곤층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와 같이 고유명사처럼 활용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를 주제로 여성빈곤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빈곤의 여성화가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정의 방식은 성별 빈곤격차(gender poverty gap)를 통해서이다(Gornick and Jantti, 2010: 14; Wiepking and Maas, 2004: 17). 성별 빈곤격차는 남성(가구주) 빈곤율과 여성(가구주) 빈곤율의 차이(difference)를 측정하거나 남성(가구주) 빈곤율 대비 여성(가구주) 빈곤율의 수준(ratio)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둘째, 여성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빈곤 양상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여성의 빈곤화(pauperization of women)를 설명할 때에도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활용된다(Herring et al, 1993: 47-50).¹⁾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빈곤화(feminization of motherhood),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같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영역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불이익이나 박탈, 사회적 배제 등의 현상을 분석할 때에도 폭넓은 의미에서 빈곤의 여성화 용어가 활용되기도 한다(Christopher, 2005: 11-16).

이러한 의미들을 내포하며 여성 빈곤을 다룬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우선 국외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빈곤 실태를 다룬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빈곤율과 빈곤위험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Brady and

1) 엄밀한 의미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의 빈곤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개념 도입 당시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층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였고,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가구주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Herring et al., 1993: 47-50).

Kall, 2008: 988; Christopher, 2005: 11-16; Daly, 1992: 1-12; Kim and Choi, 2010: 11-13; Pressman, 2003: 355). 특히 이러한 빈곤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현격히 높았다. 또한 빈곤의 강도(intensity)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남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계열적 흐름을 고려하여 여성 빈곤의 실태를 보자면, 여성의 경우 빈곤을 경험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Bastos et al., 2009: 775; Kim and Choi, 2010: 11-13). 더불어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빈곤율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성별 빈곤격차는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 외에 빈곤의 역동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빈곤의 진입과 재진입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탈출의 가능성이 낮아 장기빈곤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집단이었다(Bane and Ellwood, 1986: 1-23; McKernan and Ratcliffe, 2005: 30).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도입된 지 이미 30여년이 경과한 만큼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 빈곤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 빈곤의 여성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일부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빈곤의 여성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정체 상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Klammer, 2009: 95-96; Millar, 2009: 144). 또한 분석 기간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 역전 현상, 즉 여성보다 남성빈곤율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Northrop, 1990; Sainsbury and Morissens, 2009: 36). 더불어 빈곤의 여성화가 일부 선진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Medeiros and Costa, 2008: 123-124). 둘째, 기존의 연구 주제들이 빈곤여성의 상태(status)를 설명하는데 국한되어, 정작 여성 빈곤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과 사회 내 여성의 위치(position)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Johnson, 2005: 77). 특히 가구 안팎에서 발생하는 성별 불평등이 여성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은 가구 밖의 불평등만큼 가구 내 불평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주류의 빈곤연구 뿐만 아니라 여성빈곤 연구에서도 가구가 하나의 단위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빈곤이 발생하는 첫 번째 장소가 가족임을 상기할 때 가구 내 불평등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빈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빈곤율의 수치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빈곤율이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석재은, 2004: 174). 가족이론, 노동시장이론, 그리고 복지국가 이론을 중심으로 빈곤의 결정요인이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배제, 시간빈곤, 행위주체성 등 대안적인 빈곤개념을 활용하여 기존의 소득빈곤 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여성빈곤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들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노혜진·김교성, 2010: 177-182; 노혜진, 2011: 297-299; 정미숙, 2007: 213). 더불어 빈곤에 대한 빈곤 여성의 인식과 생활전략, 빈곤화 과정 등을 다룬 질적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김정희, 2009: 165-166; 이연화, 2009: 248-250).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빈곤의 양적 연구 대다수가 분석단위를 가구주로 설정함에 따라 결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실태를 중심으로 빈곤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 단위에서 여성빈곤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홍백의·김혜연, 2007: 130-131).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의 수치와 성별 격차에 국한되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2. 빈곤의 여성화 접근방법의 한계

개념의 도입 당시 빈곤의 여성화가 의미하는 바는 빈곤 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였다(Pearce, 1978). 이후 전개된 논문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남성의 빈곤 대비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Brady and Kall, 2008: 988; Pressman, 2003: 355).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두 가지는 다소 상이한 개념이다. 전자는 두 집단의 인구구성에 관한 문제인 반면, 후자는 양 집단의 차이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빈곤의 여성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여성화(化)라는 용어에는 ‘--이 되다’, 즉 변화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여성화를 설명할 때 단순히 여성 혹은 여성에게서 빈곤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단순히 여성의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화라기보다는 여성의 상태에 가까우며, 여성화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정(process)이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화는 ‘여성적으로 된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상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성과의 비교가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여성의 절대적 빈곤수치만을 가지고 여성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Medeiros and Costa, 2008: 116-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빈곤의 여성화는 과도하게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에 국한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여성빈곤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은 여성가구주의 줄임말처럼 사용된다. 이와 같이 여성가구주가 여성빈곤 문제를 대표하는 집단이 된 데에는 다음의 네 가지 배경이 작용하였다(Chant, 2003, Ch.2). 첫째, 2인 생계부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한 명의 생계부양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즉 부양의무와 책임은 늘어나지만 이전소득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한 여성가구주의 상황 자체가 여성의 불이익이나 취약함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볼 때,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등장한 시대적 상황이 저소득 여성가구주와 자녀들이 급증한 시기였다. 셋째, 빈곤의 분석이 주로 양적인 측정에 기반하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가구주가 있는 여성가구원보다 여성가구주가 통계적으로 가시화되기 쉬운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여성가구주라는 특정 집단을 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아젠더로서 작용하였다. 여성가구주를 강조함으로써 표적집단을 구체화하고,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선별화된 공공부조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여성빈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분석단위가 다르고 빈곤층을 구성하는 해당 인구집단도 다르다

(Medeiros and Costa, 2008: 116-117).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는 극빈 여성가구주의 경우 단독 가구를 형성하기보다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여성가구주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Chant, 2003, Ch.3). 그 외에도 여성가구주 내에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성가구를 선택하는(trade off) 경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여성빈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를 강조할 때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여성빈곤과 관련된 논의에서 여성가구주만을 강조하다보면, 가구 안에서 발생하는 젠더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Chant, 2003: Ch.3; Fukuda-Parr, 1999: 99-100). 둘째, 여성가구를 빈곤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칫 빈곤 발생의 원인이 가족문제와 속성 때문인 것처럼 강조될 수 있다. 한부모 가구를 빈곤집단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빈곤의 책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가구는 병리적인, 열등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설계 과정에서도 여성가구에 국한하여 여성 빈곤을 표적화함으로써 여성빈곤 정책은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상으로 ‘여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여성화 접근방법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기존연구에서 접근한 빈곤의 여성화가 가진 한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화가 상태뿐만 아니라 과정적 속성을 지닌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의 차이에 국한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범위에 전체 여성이 포함되지 않고 여성가구주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Medeiros and Costa(2008)는 빈곤의 여성화가 다음의 다섯 가지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존 연구의 접근방식으로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다(rate difference)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빈곤의 심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 강도(intensity difference)가 강해야 한다. 셋째, 빈곤층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proportion)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의 세 가지 정의는 여성의 높은 빈곤, 즉 상태(state)를 설명하는 것이지 과정(process)으로서

‘여성화’를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정적 속성으로서 빈곤의 여성화를 설명할 때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이 고찰도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정의는 과정을 반영하는 개념정의인데, 넷째,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빈곤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여성 빈곤율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남성빈곤율의 증가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빈곤의 여성화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여성화는 남성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를 정의하는 마지막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성별 빈곤격차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Medeiros and Costa, 2008: 119-121). 결국 Medeiros and Costa(2008)가 제시한 5개의 지표는 기존의 빈곤의 여성화 접근방식이 가진 두 가지 한계, 즉 여성가구주와 상태로서의 빈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을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성별 빈곤격차를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여성화를 보다 통합적이고 확대된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3. 빈곤의 여성화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제시

앞 절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남성가구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어 온 기존의 빈곤의 여성화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빈곤’의 정의를 ‘소득의 결핍’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분석대상만을 확대하는 방식이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의 현실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접근방식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빈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빈곤을 정의함에 있어 소득 차원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득의 결핍만으로는 왜 여성빈곤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운가? 우선 소득은 측정 기간에 따라 다소 변동성이 크며, 이러한 속성은 여성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을 기초로 하면, 여성의 빈곤지위 변화는 들쭉날쭉해질 수 있다(Chant, 2006: 5-6). 둘째, 소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득에만 의존하여 빈곤을 설명하는 것은 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재생산 노동이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며, 이는 특히 여성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득을 통해 여성빈곤을 분석할 때 야기되는 세 번째 문제는 가구 내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구 안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숨겨진 빈곤이나 2차 빈곤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여성빈곤의 수준을 과소 측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때의 전제는 가구 안에서 복지 혹은 소비수준이 모든 가구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 내 불평등으로 인하여 여성은 소득에 대한 통제와 재정적 자율성 측면에서 제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소비, 자산, 박탈 측면에서 가구 내 성별 불평등을 경험한다(Brown, 2003: 16-22; Burton, Phipps, and Woolley, 2007: 120; Quisumbing and Maluccio, 2000: 51-56). 넷째, 소득에 기반하여 빈곤에 접근하는 기존의 방식이 가진 또 다른 한계는, 여성에게 빈곤이 소득의 결핍이라는 단일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다차원적이고 다영역적인 문제라는 것이다(Bradshaw, 2002: 12). 다시 말해 여성에게 빈곤은 저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노동과 다중 부담, 시간의 부족, 의존, 자율성의 결핍, 권력의 부재 등을 의미한다(Chant, 2010: 2; Tarkowska, 2002: 423-426). 그로 인하여 소득에 국한하여 여성빈곤을 설명하게 되면,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Bradshaw, 2002: 6-8; Wrigley-Asante, 2008: 163-16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차원을 넘어서는 빈곤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차원적인 빈곤 접근이 적용된다면 빈곤의 여성화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까? 과정적 속성으로서 여성화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 다차원적 속성에 기초한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나?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과정’의 개념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역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성에게 빈곤이 단순히 소득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노동과 여러 가지 의무의 상충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소득을 벌어들인 시점보다는 그 이전과 이후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브래드쇼는 여성빈곤의 과정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Bradshaw, 2002: 6-7). 첫째 여성들은 재생산 노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소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 이 때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재생산노동에 더해져 총 노동의 양이 증가한다. 둘째 여성들이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조 안에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결정 및 통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셋째 여성 스스로 소득할당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젠더규범과 사회규범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고유한 복지를 추구할 가능성이 낮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개인이 어떻게 빈곤을 경험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과정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형성과 배분 과정을 보다 면밀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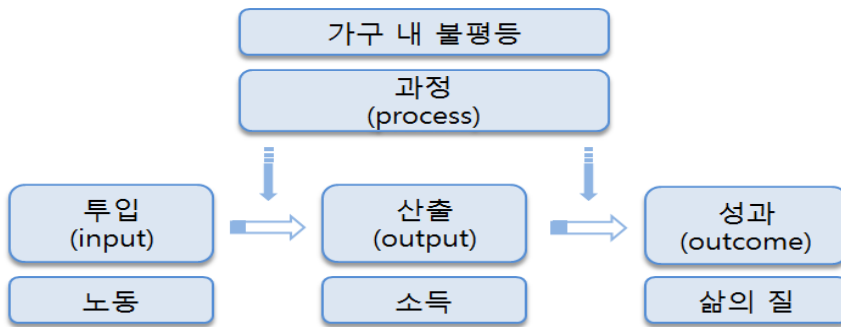
이상의 두 가지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할 때 여성가구주와 소득을 넘어서는 보다 확대된 틀이 필요하다. 빈곤의 다차원성, 복수의 시점을 고려한 접근방법에 대해 이미 몇몇 학자들은 그 개념틀을 제시하여 왔다. 우선 Boarini and d’Ercole(2006: 11-12)의 연구에서는 빈곤을 구분하는 두 가지 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투입(input)과 성과(outcome) 차원이고, 두 번째는 화폐와 비화폐적 차원이다. 여기에서 투입은 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의미하고, 성과는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달성한 복지나 생활수준을 의미한다. 두 가지 축의 각 지표를 교차하면 빈곤에 접근하는 네 가지 범주가 등장한다. 우선 투입 중심 화폐 접근(input based monetary)에서는 소득에 기반해 빈곤을 측정하고, 투입 중심 비화폐적 접근(input based non-monetary)에서는 고용상태나 공공서비스에 주목한다. 그리고 성과 중심 화폐적 접근(outcome based monetary)에서는 지출 수준을 통해 기본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성과 중심 비화폐적 접근(outcome based non-monetary)에서는 박탈이나 실현가능능력을 측정한다.

둘째, Wagle(2008: Ch.1)의 연구에서도 빈곤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과정의 다양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빈곤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과(outcome)로서 개인의 기능(functioning)만을 분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기능을 달성하기 전 단계에서 개인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input)으로서 실현가능능력(capability)도 분석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투입이 결과로 전환되는 과정(process)도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hant(2008: 188-190)의 경우 여성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여성 빈곤 문제가 ‘소득 빈곤의 여성화’에서 나아가 ‘책임과 의무의 여성화’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보다 깊이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여성 빈곤연구는 가구 생존을 위하여 남성에 비해 보다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여성 노동의 투입 정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여성 빈곤 연구는 가구 내 의무와 자격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녀 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보상이나 권리, 복지 수준은 그에 상응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빈곤의 여성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안하자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소득빈곤은 빈곤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빈곤의 여성화를 구성하는 차원 중 하나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득이나 소비수준 자체가 개인의 복지를 충분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소득은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동 혹은 사회적 권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Sen, 1999). 따라서 기존의 빈곤의 여성화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던 소득은 하나의 산출물(output)로서 위치하게 된다.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하는 두 번째 차원은 소득이라는 산출물을 얻기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노동의 수행이나 노력,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권리 등 투입(input)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빈곤을 예방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과도한

노동과 임무의 상충 등이 미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하는 마지막 차원은 소득이라는 결과가 개인적 수준의 복지로 전환된 상태이며, 이것은 성과(outcome)라고 명명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입에서 산출, 그리고 산출에서 성과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여성화는 가구내 불평등으로 인하여 심화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빈곤의 여성화는 소득빈곤의 여성화에서 나아가 투입과 산출,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빈곤의 여성화의 새로운 접근방법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우선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를 활용하였다. 노동패널은 1998년 1차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12차 자료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패널조사 중에서 조사 기간이 가장 길다. 따라서 여성빈곤의 실태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변화까지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상응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분석의 기간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년간이다. 노동패널에서는

가구소득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개년도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빈곤의 실질적인 측정기간은 11년이다. 분석대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11개년도 평균 4,301가구이고,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평균 10,864명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넘어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하는 지표로서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였다. 노동투입의 심화는 노동시간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시간조사에서 소득을 범주형으로 조사함에 따라 빈곤 지위에 따른 노동투입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 생활시간조사와 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빈곤의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빈곤분석을 넘어 개별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여성 빈곤의 규모와 변화추이를 조망하여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와 가구원을 구분하여 상대적 빈곤율을 산정하였고,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개인을 단위로 여성빈곤을 분석할 때, 여성 개인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활용된다. 첫째는 모든 분석대상의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구소득을 조정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택했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근로소득 자체가 근로 결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인데, 여성의 근로 결정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가구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복지가 근로소득보다는 여성이 속한 가구소득에 보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을 통하여 빈곤을 측정하였다(김혜연, 2009: 50).

빈곤 지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균등화지수를 통해 가구소득을 1인 단위로 균등화된 개인소득으로 조정하였다.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후 가구소득 중위값의 50% 이하를 빈곤가구로 설정하고, 이러한

빈곤가구 안에 속해있는 여성을 빈곤여성으로 정의하였다. 빈곤의 여성화는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Medeiros and Costa(2008: 119-121)가 제시한 5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지표는 빈곤율, 빈곤갭, 빈곤층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여성빈곤율의 시계열적 변화, 시간에 따른 성별 빈곤격차의 변화이다.

한편, 투입 측면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여성화는 시간 총량과 시간 빈곤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는데, 시간 총량은 총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투입 측면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여성화는 각각의 시간 총량을 가지고 집단별 비교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시간빈곤의 측정은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여 총 노동시간 중위값의 15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과 측면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여성화는 개별 자유 시간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는데, 자유시간에는 학습시간, 여가시간이 포함된다. 그 외에 행위주체성(agency), 생활만족도, 자기명목의 재산소유 비율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 차원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여성화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지표와 산출방식은 <표 1>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1〉 분석 지표와 산출방법

	분석지표	측정 방법	자료
산 출	여성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여성/전체 여성	노동패널
	여성 빈곤갭 비율	소득갭비율×여성 빈곤율	
	빈곤여성 비중	빈곤여성/빈곤인구	
	여성 빈곤율 변화	여성 빈곤율 수치의 변화	
	성별 빈곤격차 변화	여성빈곤율(빈곤갭)/남성빈곤율(빈곤갭)의 변화	
투 입	총노동시간	임금노동+가사노동+돌봄노동	노동패널+ 생활시간 조사
	시간빈곤	총노동시간의 150% 이상	
	자유시간	여가시간+학습시간	
성 과	행위주체성	참여와 통제의 정도	기존 연구
	생활만족도	주관적 건강, 미래의 희망, 일상의 즐거움	
	경제적 권한	본인 명의 재산소유 비율	

IV. 연구결과

1. 빈곤의 여성화 분석을 위한 기존 접근방법의 결과

여성가구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여성을 치우하는 수준과 방식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지표이다(Goldberg, 2009: 6). 그렇기 때문에 여성빈곤을 분석한 많은 연구는 여성가구주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첫 번째 분석은 빈곤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성빈곤에 관한 11년간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성별 빈곤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평균적으로 16.4%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평균 44.5%로 남성가구주보다 무려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빈곤율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배 정도 높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이것은 빈곤의 여성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성별 빈곤격차의 수치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둘째, 빈곤의 심도 측면을 고려하면, 남성의 빈곤갭 비율이 7.1%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3.1배 정도 높은 21.8%로 나타나, 역시 성별에 따른 1:3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체 빈곤층 안에서 여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빈곤율과 빈곤갭, 그리고 성별 빈곤율의 격차가 시계열적으로 볼 때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던데 반해, 빈곤층 안에서 여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빈곤층 안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사이 27.7%에서 40.0%로 약 44%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주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 Pearce가 주목했던 것처럼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은 아직 전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가구주를 중심으로 빈곤율을 분석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빈곤층 내부에 여성가구주의 ‘과잉대표성(over-representation)’이다. 11차 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모집단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인 반면 빈곤층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라는 것은, 빈곤층 내부에 여성가구주들이 상대적으로 과잉대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인구학적 비중에 비해 빈곤층 내부에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여성가구주의 형성 자체가 매우 억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성가구주가 될 때 경험하는 높은 빈곤 위험, 그리고 전통적 사회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여성가구주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부정적 인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성가구주 가구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숨겨진 빈곤’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김수정, 200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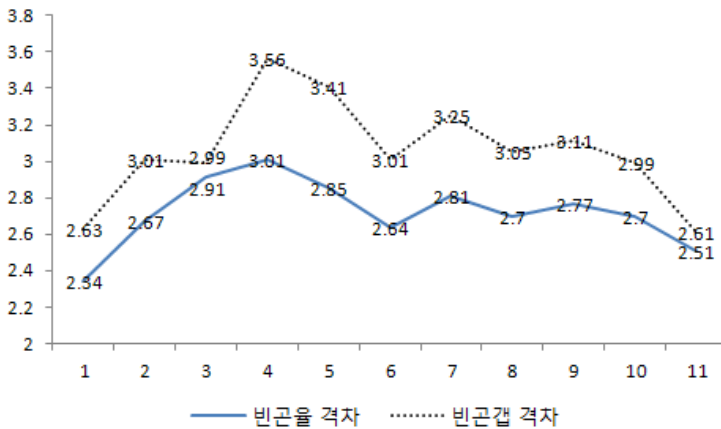
〈표 2〉 가구주 단위 소득빈곤 분석 결과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11	평균
전체	21.3	21.0	21.3	20.8	22.2	22.5	20.6	20.5	20.7	21.3	21.9	21.3
빈곤율 남성	17.3	16.8	16.7	16.0	17.2	17.5	15.6	15.5	15.3	15.8	16.6	16.4
여성	40.5	44.9	48.6	48.1	49.0	46.2	43.9	41.8	42.4	42.6	41.6	44.5
빈곤갭 전체	10.8	9.7	10.9	9.9	10.6	10.4	8.2	8.0	8.4	9.3	9.2	9.6
남성	8.7	7.5	8.5	7.1	7.7	7.7	5.8	5.8	5.9	6.6	6.9	7.1
여성	22.9	22.6	25.4	25.5	26.4	23.2	19.0	17.7	18.4	19.9	18.1	21.8
빈곤층 분포	27.7	31.4	33.0	34.8	34.4	35.6	37.6	38.6	40.6	40.8	40.0	35.9

주: 빈곤율(갭) 격차 = 여성 빈곤율(갭)/남성 빈곤율(갭)

넷째, 이러한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빈곤율은 일정한 경향성 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빈곤율이 정점에 달하다가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율의 격차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그림 2]), 여성 빈곤율이 증가한 시기에 성별 빈곤율의 격차도 심화되었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매우 소폭이기는 하지만 성별 빈곤 격차 역시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림 2〕 성별 빈곤격차의 변화(가구주)

결국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성별 빈곤격차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여성빈곤율이나 성별 빈곤격차가 계속적으로 심화되지 않고 있었고,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하는 5가지 지표 중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지표는 빈곤의 여성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한다면,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성별 빈곤격차의 문제이지, 빈곤층 내부에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여성의 빈곤양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빈곤의 여성화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검증

1) 개인 단위의 소득 빈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빈곤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여성 빈곤의 문제를 가시화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여성 빈곤율과 빈곤갭의 수준이 남성의 3배라는 결과는, 남성과 대비한 여성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체 빈곤층 내부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여전히 여성빈곤 문제에

대하여 가구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빈곤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가구주를 단위로 분석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는 그것이 개별 여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5세 이상의 모든 여성 중에서 가구주의 지위를 가진 여성은 22%이다(통계청, 2011). 이것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분석방법이 모든 여성 중에서 22%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78%의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 문제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구주 단위의 분석이 드러내지 못하는 여성의 숨겨진 빈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구주를 단위로 빈곤율을 측정하게 되면, 남성에 비해 여성빈곤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강조할 수 있지만,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수준이라는 한계에 직면한다. 결국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다수가 아니라는 결과는 빈곤정책의 설계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여성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빈곤의 여성화를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분석으로서 분석단위를 가구주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후 빈곤실태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개인 단위에서의 소득 측정은 각 개인이 속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고, 개인 단위로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였다. 여성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여성 개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복지가 근로소득보다는 여성이 속한 가구소득에 보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혜연, 2009: 50). 또한 기혼 여성의 고용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기도 한데, 기혼 여성들은 남성의 고용형태 및 소득에 의해 고용결정이 이루어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본인의 계층을 인식하고 있다(이병훈·신재열, 2009: 217-223).

우선, 성별 빈곤율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빈곤율은 평균적으로 16.0%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의 빈곤율은 평균 18.9%로 남성보다 약 1.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결과는, 남성의 경우 분석단위를 가구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빈곤율 수치상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빈곤율이 가구를 단위로 할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둘째, 빈곤의 심도 측면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의 빈곤갭 비율은 6.9%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8.4%로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2 배 정도 높다. 결국 가구주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하게 되면 성별 빈곤 격차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셋째,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개년도 평균 56% 정도로 나타났고, 이러한 수치는 가구를 단위로 할 때와 비교해서 17-25% 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 내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개별인구를 대상으로 빈곤을 측정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결과는 빈곤정책의 설계가 보다 성인지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개인 단위 소득빈곤 분석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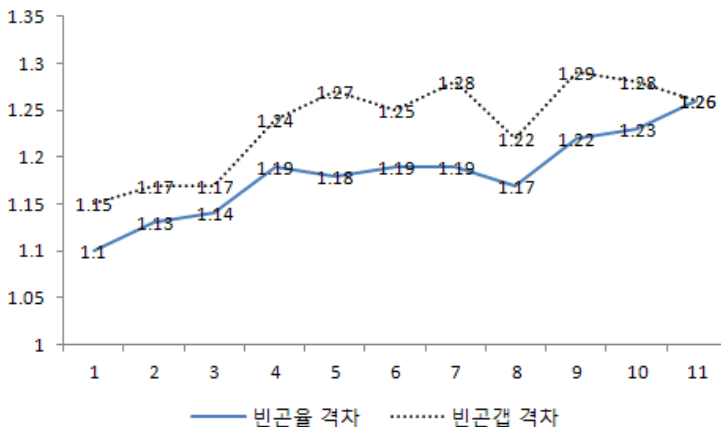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평균
전체	18.5	17.9	18.2	17.2	18.0	18.2	16.7	16.4	16.5	16.9	17.7	17.5
빈곤율 남성	17.6	16.8	17.0	15.7	16.5	16.5	15.2	15.1	14.8	15.1	15.6	16.0
여성	19.4	18.9	19.3	18.7	19.4	19.7	18.1	17.6	18.1	18.5	19.7	18.9
빈곤갭	9.3	8.0	9.2	7.7	8.6	8.0	6.3	6.2	6.5	7.1	7.2	7.7
비율 남성	8.6	7.3	8.4	6.9	7.5	7.0	5.5	5.6	5.6	6.2	6.3	6.9
여성	9.9	8.6	9.9	8.5	9.6	8.8	7.1	6.8	7.2	8.0	8.0	8.4
빈곤층 분포	53.8	54.8	55.0	56.1	55.7	56.2	56.1	55.7	56.8	56.6	57.3	55.8

주: 빈곤율(갭) 격차 = 여성 빈곤율(갭)/남성 빈곤율(갭)

한편, 이러한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빈곤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여성은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빈곤갭 비율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 성별 빈곤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빈곤의 여성화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가구주 단위와 비교해서 성별 빈곤격차의 수치 자체는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성별 빈곤격차의 변화 측면에서 본다면, 빈곤의 여성화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결국 모든 여성을 아우르지 못하고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성별 빈곤격차는 가시화할 수 있지만,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성빈곤의 변화 차원에서 볼 때 빈곤의 여성화가 충분히 드러나기 어렵다. 그러나 분석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게 되면, 빈곤층 내부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빈곤의 심화가 드러나지만 성별 빈곤격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분석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를 구성하는 지표 간에 교환(trade off)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성별 빈곤격차의 변화(개인)

한편, 여성빈곤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가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성가구주와 여성가구원 간에 빈곤율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근로세대 여성 중에서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빈곤율을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의 빈곤율이 2배에서 2.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마치 남성가구주와 함께 사는 여성이 빈곤 위험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분석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동일선상에 있는 집단을 비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가구의 빈곤율 자체는 여성가구원보다 높지만,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원의 삶의 질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여성가구원의 빈곤위험이 여성가구주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비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의 삶의 질은 여성가구원보다 여성가구주가 더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는 일반적으로 남성가구주와의 비교대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여성가구원과의 비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가구주에 비해 취약한 여성가구의 빈곤 위험이 부각될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여성가구원의 빈곤 위험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여성가구주가 여성가구원보다 빈곤에 더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일 집단 내에서 두 대상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빈곤층 내부 혹은 비빈곤층 내부에서 여성가구주와 여성가구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득빈곤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빈곤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성 간 차이, 즉 동일한 빈곤층 내에서 여성가구주와 여성가구원 간에 존재하는 삶의 질 측면에서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4> 여성가구주와 가구원의 빈곤율(19-64세)

(단위: %)

	3차		5차		7차		9차		11차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가구주	가구원
빈곤율	37.1	13.7	35.1	12.1	26.1	10.8	25.5	9.8	24.2	10.5
빈곤사례	135	529	140	463	128	431	153	389	147	395

2) 투입과 성과 측면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를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서 노동시간을 활용하였다. 개인의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때 결과는 기존의 성별 격차뿐만 아니라 빈곤지위에 따른 격차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빈곤남성과 여성, 비빈곤 남성과 여성 등 4개의 집단이 등장 가능하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구의 생존을 위한 투입의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비빈곤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구체적인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비빈곤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빈곤 여성보다 무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녀 양육과 투자의 양극화를 입증하는 바이며, 여기에는 비빈곤 여성의 선호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Esping-Andersen, 2009: 121-130). 이에 돌봄노동 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빈곤 여성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빈곤의 여성화가 현실에서는 가구의 생존을 유지, 지속시키기 위하여 ‘노동의 여성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총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빈곤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 중에서 빈곤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빈곤의 위험이 약 5%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네 개 집단 중에서 시간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빈곤 여성인 반면, 빈곤남성의 경우 시간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총노동시간과 시간빈곤을 모두 고려할 때, 가구 생존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량이 빈곤 여성에게서 가장 높고, 성별 격차는 빈곤층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5〉 빈곤 여성의 영역별 노동시간

(단위: 분)

	남성			여성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임금노동	310.4	317.4	259.2	184.7	181.8	203.4
무급노동	34.0	33.6	36.9	198.5	202.5	173.1
가사노동	22.6	21.4	32.0	146.5	146.1	149.2
돌봄노동	11.3	12.2	4.9	52.0	56.4	23.9
총노동	344.3	351.0	296.1	383.2	384.2	376.5
총노동(돌봄제외)	333.0	338.8	291.2	331.2	327.8	352.6
시간빈곤	17.2	17.6	13.6	22.3	22.2	23.0

다음으로 성과 측면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자유시간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자유시간의 수준이 낮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자유시간이 여성보다 하루 평균 25-35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내부에서는 빈곤 지위에 따른 자유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남성은 비빈곤 남성보다 빈곤 남성의 자유시간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빈곤층 내부에서 자유시간 사용에서의 성별 격차가 명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빈곤 여성의 영역별 자유시간

(단위: 분)

	남성			여성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학습	15.4	16.0	11.0	14.8	16.2	5.5
여가	288.0	280.0	345.9	261.6	259.9	272.4
참여 및 봉사	2.0	1.7	3.5	2.3	2.2	3.4
교제 및 여가	286.0	278.3	342.4	259.3	257.8	269.0
총 자유시간	303.3	296.0	357.0	276.4	276.2	277.8

성과 측면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보다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도 활용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행위주체성

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1: 293-296). 또한 생활만족도 측면에서 볼 때 비빈곤여성보다 빈곤여성에게서 주관적 건강과 생활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장휘숙, 2010: 9). 그리고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빈곤남성보다 빈곤여성에게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양옥남, 2005: 24). 마지막으로 경제적 권한을 중심으로 한 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자기명의 재산소유의 비율이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 하층에서 남성의 88.6%가 본인 명의 재산을 소유한 반면, 여성은 39.2%에 그치고 있다(손승영, 2003: 103). 결국 이러한 결과는 모두 빈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보상이나 권리, 복지 수준은 그에 상응하지 않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빈곤하게 사는 여성가구가 매우 많다’는 주장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였다. 지금까지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구내 불평등 문제의 간과, 여성가구의 낙인화, 여성 빈곤정책의 축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가 현재의 접근방법과 담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 정의의 확대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소득은 빈곤을 측정하는 가장 유용하고 명확한 지표이지만, 소득이라는 화폐자원을 통하여 개인을 단위로 여성빈곤을 분석하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빈곤양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다른 집단과 비교되는 빈곤여성의 상황적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이것은 곧 빈곤정책 설계 과정에서 빈곤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소득을 벌어들이는 모든 단계의 역동적인 과정, 즉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에 발생하는 여성의

빈곤경험을 충분히 고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 방법이었던 결과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단계까지 아울러서 투입, 산출, 성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확장된 틀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주를 단위로 측정할 경우 1:3 성별 빈곤 격차 공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여성의 20% 정도만을 아우르는 한계를 내포한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가구주 단위 분석에서는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빈곤의 악화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개별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 문제에 접근하면서 더불어 여성빈곤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젠더 관계의 원인을 포착하기 위해 개인을 단위로 한 측정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단위로 빈곤실태를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 시간이 갈수록 빈곤율과 빈곤갭의 성별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성별 빈곤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빈곤 위험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개별 노동시간과 자유시간, 행위주체성, 생활만족도, 개별 자산소유 등을 중심으로 확장된 틀을 적용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빈곤 여성의 노동시간과 시간빈곤이 다른 모든 집단보다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시간이나 행위주체성, 자산소유 등과 같이 빈곤여성의 성과 수준은 낮았다.

이와 같이 확대된 틀을 적용할 때,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논의는 기존에 ‘소득이 결핍된 여성가구주가 많다’는 논의에서 ‘빈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여성의 노동량이 많은 반면, 개인의 삶의 질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이동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구주가 아닌 여성들, 즉 비빈곤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숨겨진 빈곤(hidden poverty)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복합적이고 2차적인 빈곤(secondary poverty) 문제 역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성(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제 18권 제1호, pp.43-82.
- 김교성·노혜진(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 34권, pp.133-162.
- 김교성·노혜진(2009).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185-212.
-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제7권 제1호, p.93-133.
- 김수정(2008).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33-52.
- 김정희(2009). 차상위계층 여성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공공부조 수급경험,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1호, pp.143-171.
- 김혜연(2009). 여성의 소득불평등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남상호·권순현(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3-32.
- 노혜진·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2호, pp.159-187.
- 노혜진. (2011). “여성 행위주체성에 관한 생애단계별 고찰: 빈곤개념의 확장”. 여성연구, 제80권, pp.267-306.
- 석상훈(2007). 빈곤의 지속: 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pp.79-99.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 56권 제2호, pp.167-194.
- 손승영(2003). 한국 부부관계의 현주소와 정책 제언, 동덕여성연구, 제8권, pp.87-120.

- 양옥남(2005). 빈곤층의 재가복지서비스 만족수준에 따른 생활만족 분석: 노인 빈곤층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정책, 제22권, pp.5-32.
- 이병훈·신재열(2009).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제76호, pp.205-232.
- 이연화(2009).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활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부사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1호, pp.225-254.
- 이정아(2009). 여성가구주 가구의 향상빈곤화, 여성연구, 제77호, pp.49-79.
- 장휘숙(2010). 노년기 여성의 빈곤과 주관적 건강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3권 제1호, pp.1-15.
- 정미숙(2007).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pp.191-216.
- 최균·서병수·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1호, pp.85-111.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홍백의·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pp.125-146.
- Bane, M.J, and Ellwood, D.T.(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1, No.1, 1-23.
- Bastos, A, Casaca, S., Nunes, F., and Pereirinha, J.(2009). "Women and poverty: a gender-sensitive approach".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38, 764-778.
- Boarini, R., and d'Ercole, M.(2006). "Measures of material deprivation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37, 1-70.
- Bradshaw, S.(2002). Gendered Poverties and Power Relations: Looking Inside Communities and Households. 1-41.
- Brady, D. and Kall, B.(2008). "Nearly universal, but somewhat distinc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affluent western democracies, 1969-2000". *Social Science Research*, Vol.37, 976-1007.

- Brown, P. H.(2003). "Dowry and intrahousehold bargaining: Evidence from China".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o.608
- Burton, P, Phipps, S., and Woolley, F.(2007). "Inequality within the household reconsidered". Jenkins, S.P. and Micklewright, J.(eds.). *Inequality and Pover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 103-125.
- Chant, S.(2003). "Female household headship an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facts, fictions and forward strategies". *LSE Working Paper*
- Chant, S.(2006). "Re-thinking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relation to aggregate gender indic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7 No.2, 201-220.
- Chant, S.(2008). "The feminisation of poverty and the feminisation of anti-poverty programmes: room for revis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44, No.2, 165-197.
- Chant, S.(2010). "Towards a (re)conceptualisation of the feminisation of poverty: Reflections on gender-differentiated poverty from The Gambia, Philippines and Costa Rica". in Chant, S.(ed). *International Handbook of Gender and Poverty*. Edward Elgar.
- Christopher, K.(2005). "A 'pauperization of motherhood'? single motherhood and women's poverty over time". *Journal of poverty* Vol.9, No.3, 1-23.
- Daly, M.(1992). "Europe's poor women? Gender in research on povert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8, No.1, 1-12.
- Esping-Andersen, G.(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Polity.
- Fukuda-Parr, S.(1999). "What does feminization of poverty mean? it isn't just lack of income". *Feminist Economics* Vol.5, No.2, 99-103.
- Goldberg, G. S.(2009). "Feminization of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 Any surprises?“. in *Poor Women in Rich Countries*, Goldberg, G.S.(ed.), Oxford University Press, 3-27.
- Gornick, J. and Jantti, M.(2010). “Women, poverty, and social policy regimes: a cross-national analysis”.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No. 534
- Herring, C, Horton, H.D. and Thomas, M.E.(1993). “Feminization of poverty or pauperization of women?: Clarifying the sources of change in the impoverishment of women and their families”. *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Vol.7, No.1, 43-65.
- Johnson, R.(2005). “Not a sufficient condition: The limited relevance of the gender MDG to women’s progress”. in C. Sweetman(ed.) *Gender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xford: Oxfam, 56 - 66.
- Kim, JW and Choi, YJ.(2010). “Feminization of poverty in 12 welfare states: strenthening cross regime variations?“. *LIS Working Paper*, No. 549.
- Klammer, U.(2009). “Germany: Poverty as a risk for women deviating from the male breadwinner norm“. in *Poor Women in Rich Countries*, Goldberg, G.S.(ed.), Oxford University Press, 94-120.
- McKernan, SM. and Ratcliffe, C.(2005). “Events that Trigger Poverty Entries and Exit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86, 1146-1169.
- Medeiros, M. and Costa, J.(2008). “Is there a feminization of poverty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36, No.1, 115-127.
- Millar, J.(2009). “The United Kingdom: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Poor Women in Rich Countries*, Goldberg, G.S.(ed.), Oxford University Press, 121-150.
- Northrop, E. M.(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s Issues* Vol.24, No.1, 145-160.
- Pearce, D.(1979). *Women, Work, and Welfare: the feminization of*

poverty.

- Pressman, S.(2003). “Feminist explanation fo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s Issues* Vol.37, 353-360.
- Quisumbing, A.R. and Maluccio, J.A(2000). *Intrahousehold Allocation and Gender Relations: New Empirical Evidence from Four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Sainsbury, D. and Morissens, A.(2009). “Sweden: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Poor Women in Rich Countries*, Goldberg, G. S.(ed.), Oxford University Press, 28-60.
- Sen, Amartya.(1999).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박우희(역).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 Tarkowska, E.(2002). “Intra-household gender inequality: hidden dimensions of poverty among Polish wome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35, 411-432.
- Wagle, U.(2008).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Springer. 1-13.
- Wennerholm, C. J.(2002). *The ‘Feminisation of Poverty’: The Use of a Concept*.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Wiepking, P. and Ineke M.(2004). “Gender differences in poverty: a cross-national research”.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No. 389.
- Wrigley-Asante, C.(2008). “Men are poor but women are poorer: Gendered poverty and survival strategies in the Dangme West district of Ghana”. *Norsk Geografisk Tidsskrift-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62: 161-170.

Abstract

Framework shift abou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Noh Hye-jin*

The fact that degree of women's poverty risk is higher than that of men's one has been firmly proved since discussion about 'feminization of poverty' appeared. The common way to explain women's poverty is to measure income of female householders and according to this, poverty rate of women is 3 times higher than that of men. If so, is poverty a problem really applicable to female householders only? Is poverty risk of women who live together with male householders low? And, does a woman with poor income have the same high poverty risk both before and after getting income?

In order to find out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analyzes method of feminization of poverty. Through 5 indicators such as poverty rate and gap between gender, women's weight in poverty strata, change in gender poverty gap and change in female poverty rate, many-sided analysis was made on poverty status of women. It used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or an analysis from the output level, and also utilized data combined KLIPS with Time Use Survey for an analysis from the input and outcome level.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formula of 1:3 gender poverty gap still applied. However, such a method connotes a limitation that it is an analysis only limited to a part of women. Thus, poverty status was measured on the individual unit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gender poverty gap became intensified as time went. And in

*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terms of input, poor female had the longest gross working hours among all the groups. Also, looking into the poverty in terms of outcome, poor women experienced mixed exclusion.

In order to find out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ramework about feminization of poverty into 3 phases; input, output and outcome. It will show the feminization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hidden poverty, and secondary poverty.

Key words: feminization of poverty, multi-dimensional poverty, secondary poverty, hidden poverty

